

# KIA 안방마님 김태군 “올 시즌 목표는 ‘유지’”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지난 시즌 좋은 기억 접어두고 선수들 스스로 발전하는 시즌 새 얼굴 올리는 ‘강속구 투수’ 2년차 네일은 ‘기대반 걱정반’ ‘연패 달성’ 위해 적극 리드할 것



KIA 타이거즈 포수 김태군(사진)이 ‘유지’를 목표로 차분하게 2025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태군에게는 잊지 못할 2024시즌이었다. KIA의 안방 마님으로 정규 시즌 1위를 이끌었던 그는 한국시리즈에서는 프로 첫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V12’를 확정하는 정해영의 마지막 공을 받으면서 짜릿한 우승 세리머니도 펼쳤다. 뜨거웠던 시즌을 보냈던 그는 “작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시즌이었다. 하지만 작년은 이제 끝났다. 좋은 기운 받았고, 좋은 경험했고, 멋진 경험도 했다.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KIA의 ‘연패 도전’을 위해서는 마운드 힘이 중요하다. 그만큼 김태군에게 배터리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 투수들과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승리를 지키는 게 그의 임무다. 특히 외국인 원투번치기 마

운드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제임스 네일과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윌러와 좋은 호흡이 필요하다. 일단 지금까지 어바인 스프링 캠프 흐름은 좋다. 김태군은 “각자 겨울에 몸을 잘 만들어온 것 같은데 피칭이랑 라이브 BP, 게임 가면 또 달라지는 게 투수다. 일단 볼펜에서 공 던지는 건 잘 만들어 온 것 같다”고 투수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했다. 윌러에게서는 ‘강속구 투수’의 면모를 보고 있다. 김태군은 “일단은 자기가 직구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도 볼 끝도 좋

다. 새로 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깐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한다”며 “윌러와 네일은 유형이 좀 다른 투수인 것 같다. 네일은 무브먼트랑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그런 구질로 승부하는 투수고, 윌러 같은 경우는 공이 153-154km 이렇게 나오니까 억박지르고, 사람들이 말하는 공격적인 그런 유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에이스’ 네일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네일이 이제 한국사람 다 됐다”며 웃은 김태군은 “그런데 2년 차 때가 제일 걱정 된다. 1년 하면서 본인이 적응했고, 타자들도 이제 분명히 적응했을 것이다. 신인이랑 똑같은 것 같다. 2년 차, 3년 차 되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슬럼프가 오는 거 같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올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생각이다. 김태군은 “작년에 네일이 겪어봤다. 본인이 피칭 킴을 들고 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3게임 하다가 피칭킴을 다시 줬다(웃음)”며 “때로는 포수도 막힐 때가 있다. 포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다. 또 투수도 완벽하지 않다.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나오게 돼 있다. 사인을 내는 빈도수를 투수, 포수 어느 쪽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배터리의 호흡을 강조했다. 지난 시즌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만큼 팀은 물론 김태군 개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다른 이들의 기대의 시선과 다르게 걱정이 앞서서 김태군은 “유지’를 목표로 매일 새로운 출발선에서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태군은 “올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다”며 “개인적으로는 유지를 생각한다. 감독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유지다. 안 다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고 2025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노예림이 10일 파운더스컵 우승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범호 감독 “올 시즌 마무리도 정해영”

마무리 경쟁구도는 ‘득보다 실’ 조상우에겐 이닝 역할 맡길 것



행복한 고민에 빠진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사진)이 한 자리 고민은 지웠다. KIA 마무리는 올해도 정해영이다. 지난해 우승팀 KIA는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 1순위’다. 지난해 우승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큰 무대를 경험하면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더욱 치열해진 내부 경쟁에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팀이 더 탄탄해지고 있다. 마운드도 경쟁 속에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스피드도 컨트롤도 좋고, 다들 잘 던진다. 작년부터 시키기보다는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야기를 했다. 캠프 때 확실하 다르다. 몸을 잘 만들어 왔다”며 “시즌 때도 몸 잘 만들고,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관리를 잘하니깐 컨디션이 빨리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다.

마운드는 물론 내·외야 곳곳에 경쟁이 펼쳐지면서 이범호 감독은 자리 구성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캠프 실전까지 소화하면서 2025시즌 밀그림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고민 없이 마무리 자리에는 정해영의 이름을 써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에는 유철과 유입이 있었다. 지난해 볼펜에서 75.1이닝을 책임졌던 장현식이 FA 계약을 맺고 LG로 이적했고, 트레이

드를 통해 조상우가 키움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키움의 마무리로도 활약했던 조상우가 가세하면서 볼펜의 변화도 예고됐지만 이범호 감독은 정해영을 경기 가장 마지막에 올릴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가 마무리로 경험도 있고 뛰어난 선수이지만 정해영과 자리를 바꿨을 때 두 선수 모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정해영이 마무리로 나서고, 정해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상우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경쟁이 전개될 경우 팀의 뒷문을 책임졌던 정해영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반대의 시즌을 보내야 하는 조상우도 마무리 자리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지난 시즌 틀을 유지한 채 조상우에게 이닝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는 워낙 시즌 때 몸 잘 만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맞춰서 컨디션을 잘 올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볼펜을 했던 선수라 알아서 준비할 것이다. 우리 팀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몸을 만드는지 그런 부분을 맞춰주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광주FC 아챔리그 16강 확정 나선다

오늘 중국 산둥 타이산과 7차전

광주FC가 중국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16강을 확정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산둥 타이산을 상대로 24-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원정 경기를 갖는다. 16강 확정을 위한 무대다. 지난해 창단 후 처음 ACLE에 등장한 광주는 4승 1무 1패(승점 13)로 동아시아 그룹 2위에 오르며 돌풍의 팀이 됐다. 산둥 원정으로 2025년 첫 경기를 치르는 광주는 승리로 16강 확정을 노린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자리를 지킨 이정호 감독은 광주만의 시스템과 철학으로 새 시즌을 준비했다. 선수들도 동계 훈련 기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담금질을 하며 도전의 시즌을 기대했다. 7골을 터트리면서 ACLE 득점 1위에 이름을

올린 아사니와 함께 3년 만에 광주로 돌아온 헤이스가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박정인, 황재환, 유제호 등도 골 사냥에 나선다.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찬 이민기를 중심으로 ‘최고참’ 안영규, 변준수 그리고 ‘수문장’ 김경민까지 수비진은 든든하다. 새로 영입한 권성운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최강희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산둥 타이산은 현재 ACLE 2승 1무 3패로 동아시아 그룹 10위이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서 ‘심판 모욕’ 이유로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광주의 경계 대상은 K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외국인 선수 바코, 제카 등이다. 골득실에 밀려 고베에 이어 2위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부리람 유니이티드(태국)와의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16강을 확정하게 된다. ACLE을 통해 2025시즌 여정을



이민기

시작하는 광주가 16강을 확정하고 기본 줄게 15일 수원FC와의 K리그1 개막전을 치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노예림, LPGA 첫 우승

파운더스컵... 고진영 2위

부상을 털고 돌아온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번째 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했다. 고진영은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의 브레이튼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2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교포 선수인 노예림(미국)에게 4타 뒤진 2위에 올랐다. 이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했던 고진영은 4번째 우승은 다음으로 미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해마다 한번 이상 LPGA 투어에서 우승을 신고했지만, 부상 여파로 지난해에는 우승 없이 보냈던 고진영은 1년 9개월 만의 우승은 무산됐지만 이제는 우승 경쟁을 벌일 만큼 경기력을 회복했음을 알렸다. 고진영은 개막전 공동 4위에 이어 2주 연속 톱5에 진입했다. 노예림에게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고진영은 4번(파4), 6번(파5), 8번 홀(파5) 버디로 노예림을 1타차 2위로 밀어내고 리더보드 맨 윗줄을 깨자 시즌 첫 우승에 파란불을 쬐다.

그러나 13번 홀(파4) 그린 주변 벙커에 불이 박히면서 불운이 시작됐다. 고진영은 3m 파퍼트를 넣지 못하고 노예림은 티샷한 불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황무지에 떨어졌는데 도 잘 쳐내서 만든 2.5m 버디 기회를 살렸다. 고진영은 힐튼 그랜드배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 3라운드 7번 홀 이후 이어온 노보기 행진도 96홀에서 멈췄다. 13번 홀에서 노예림이 1타차 선수를 내준 고진영은 이어진 14번 홀(파4)에서도 2m 파퍼트를 놓쳤고, 역시 티샷을 황무지로 보낸 노예림은 4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 경쟁에 배기를 박았다. 3타차로 뒤진 고진영은 16번 홀(파4)에서 그린을 놓친 뒤 또 한 번 3m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해 더는 노예림을 추격할 동력을 잃었다. 노예림은 16번 홀에서도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 황무지로 날리고도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고 17번 홀(파5)에서도 두 번째 샷이 황무지에 떨어졌지만, 파를 지켰다. 여자 선수로는 드물게 빗자루처럼 긴 블룸스틱 퍼터를 사용하는 노예림은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3타를 줄여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했다. 2020년 데뷔 이후 6번째 시즌 만에 첫 우승이다. /연합뉴스